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에게 유권자 등록 사칭 행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

*서명 및 스투벤 카운티에서 주민들에게 전화 투표 등록을 유도하는 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온다는 신고 접수*

**총선 투표 등록 마감일은 10월 12일**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서명 및 스투벤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 사칭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면서 뉴욕 주민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번호 607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전화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혹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은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기 행위에서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전화를 통해 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기초이므로, 이와 같은 사칭 행위는 안보를 해칠 뿐 아니라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뉴욕 주민들께서는 이런 사칭 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혹시 의심스러운 선거 활동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신고 의식을 발휘해주시면 국에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https://www.ny.gov/services/register-vote>에서 안전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등록 상태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를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6일 뉴욕 총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2일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도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불법 행위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주지사는 주 전체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주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실천 사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